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ege는 스카이트레인 langara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집에서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으로 20분~30분 정도 걸렸습니다(개인차 있음) 학교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시설은 좋으며 내부에 스타벅스, 팀홀튼, 서브웨이 등의 카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수업	오전수업 3시간 오후수업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주일 단위로 수업 테마가 있습니다. 겨울 단기어학연수는 반이 따로 만나뉘지고 16명이 한 반에서 다같이 수업합니다. 교재 또한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EO(English Only)가 규칙이지만 선생님 외에 학생들이 모두 한국인이다 보니 영어를 쓰다가도 쉬는시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주에는 캐나다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용어, 문화 등)을 배우고 둘째주에는 대형 포스터를 만들어 개인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global citizenship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과제는 가끔씩 일기를 쓰는 것과 주말에 가족 인터뷰하기 등이 있으며 30분~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주동안 수업을 해주셨던 Mariette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가득하셨습니다. 홈스테이 관계자 분들도 저희가 타지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셨습니다.
필드트립	둘째 주 주말에 Victoria에 갔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간단한 여행계획서를 홈스테이 사무실과 학교 구글폼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Victoria에 가기 위해서는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어느 역에 가서 버스를 타고 페리를 타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약 1시간)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에 도착(페리 1시간반)하면 또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1시간) 페리는 왕복 약 35달러이며 빅토리아에서 버스 원데이패스권은 5달러 입니다. 주요 명소로는 empress호텔과 국회의사당 등이 있습니다. 빅토리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잘 배분해서 다녀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 날씨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가 오지 않으면 빅토리아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보다 기온은 높지만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밴쿠버는 겨울에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비가 오는 날이 해 뜰 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원래 눈도 잘 안오는 편인데, 저희가 가 있는 3주 동안 첫 주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낮에 해가 떠던 날은 5일정도 였으며, 그 외에는 비가 내려 하늘이 매우 흐렸습니다. 따라서 우산 필수!!
안전	대체로 안전한 편입니다. 항상 소지품에 유의하고 다니기도 했지만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소매치기 위험도 낮으며 사람들도 매우 친절합니다. 동양계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그런지 인종차별도 거의 못느꼈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이 워낙 한적하다 보니 껌껌할 때 집으로 가는 길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숙소	저의 홈스테이 시설은 아래층에 방 3개(아들의 큰방1, 홈스테이 방2)와 화장실1, 위층에 방 3개(아들침실, 딸 침실, 안방)와 화장실1로 이루어져 있으며, 홈스테이 하는 학생이 저 하나였기 때문에 아래층 화장실을 저 혼자 이용하였습니다. 샤워시간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통금시간은 학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는 저녁먹는 시간(오후7시)여서 밖에서 먹고 들어가거나 7시보다 늦게 집에서 저녁을 먹을 경우 미리 연락을 주는 것과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 분들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항상 먼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서 3주동안 매우 만족스럽게 지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o) 기타 (o) 아침은 집에서 시리얼 또는 토스트와 요거트를 먹고, 점심은 홈스테이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홈스테이 가족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저희 집은 샌드위치, 볶음밥, 만두 등의 메뉴를 매일

교통	다르게 준비해 주셨으며 식후에 먹을 과일과 스낵 등을 같이 챙겨주셨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친구들과 먹고 들어갈 때가 많았으며, 일찍 들어가는 날에는 집에서 먹었습니다.
	교통카드는 학교에서 먼슬리패스권으로 제공됩니다. 밴쿠버에는 우선 zone 1, zone 2, zone 3으로 나뉘져 있으며 저희는 대부분 zone 1 내에서 활동합니다. 같은 zone 안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zone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에는 추가비용이 듭니다.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이 있습니다. 버스는 all zone 1이며,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스카이트레인은 호선이 3개밖에 없어 한국에 비해 매우 단순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선으로 갈아탈 때, zone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 추가비용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평일 오후 6시 30분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zone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권	1900000	대한항공(직항)
식비	650000	간식, 저녁
개인쇼핑(옷, 가방, 과자, 기념품 등)	900000	코치, 폴로 등 매우 싼 (가족, 친척선물로 여러개씩 사서 비용이 많이 나간 편)
기타(개인활동, 추가교통비)	50000	Ferry비용, 스케이트대여, 아트갤러리 입장료(donate) 등
여행자보험	35000	사전에 냄
합계	3535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자면 ★짐을 줄이는 것★ 입니다. 저 역시 활동수기를 많이 보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체크함으로써 그곳에서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했던 것들과 밴쿠버에서 3주

동안 지내면서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을 나누어 서술해보면

<꼭 알아야 할 사항>

1. 홈스테이 생활

- 1) 홈스테이 배정을 받으면 호스트 가족의 이메일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 제가 이메일로 물어봤던 사항들로는
 - 바디워시, 수건, 헤어드라이기 제공되는지
 - 빨래를 할 수 있는지(있다면 언제?)
 - 개인 화장실 있는지
 - 집 안에 와이파이 되는지
 - 집에서 지켜야 할 다른 규칙들은 없는지(통금, 샤워시간 등)였으며 이를 통해 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제공되는 물품 다 한국에서 안챙김)
- 2)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저는 홈스테이 가족에게 드릴 선물로 허니버터 아몬드 세트를 준비해 갔으며 다행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친구들은 전통 차 세트 등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2. 쇼핑

밴쿠버에는 쇼핑할 장소로 크게 다운타운, 메트로타운, 맥아더글렌 아울렛이 있는데, 특히 아울렛에 폴로, 타미, 코치, 마이클코어스 등의 브랜드가 한국에 비해 가격이 매우 매우 싸입니다. 이 외에도 런던드럭이나 샤퍼스 같은 드럭스토어에서 산 것으로는 영양제와 메이플쿠키(LB꺼 맛있음), TUMS(천연소화제) 등을 샀으며 과자로는 chips ahoy, 오레오 레몬맛 등을 챙겨갔습니다. 저는 사전에 활동수기도 보고, 개인적으로도 검색해서 저와 가족친척들의 옷, 가방을 살 것을 미리 계획하여 ★캐리어를 2개(둘다 24인치)★ 챙겨갔으며 그 중 하나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갔습니다. (올 때는 두개 짹 짹 채워옴)

따라서 본인이 쇼핑에 관심이 일절 없는 사람이 아니면 캐리어를 2개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쇼핑을 좋아하는 분이시면 타게 될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보시고 캐리어 개수를 맙시뎡으로 맞춰서 챙기세요!

3. 날씨와 옷

겨울의 밴쿠버는 한국보다는 따뜻하지만 거의 매일 비가 오는 편입니다. 저는 외투로는 코트, 양털잠바, 슛패딩을 챙겼으며 초반에 이상기후로 폭설이 내렸을 때 외에는 크게 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히트텍과 목폴라 티, 경량패딩조끼 등 얇은 옷을 여러겹 입는

것을 추천합니다. 빨래는 보통 주말에 하지만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다른 사정으로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속옷과 양말을 많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10개 내외 추천)

4. 추천 명소, 맛집

우선 학교에서도 오후 수업에 밴쿠버의 여러 명소들을 가기 때문에 이 외에 가볼 곳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학교에서 다같이 간 명소

- 그랜빌 아일랜드, 밴쿠버 박물관, 밴쿠버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브릿지를 오후 수업때 갔습니다.
- 컬링 액티비티

2) 추천 명소

수시로 날씨 체크해서 낮에 비 안오면 꼭꼭꼭 가세요!!! 절대 후회 안합니다ㅠㅠ

- 빅토리아 아일랜드
: 소요시간상 주말에만 가능(왕복 8시간)
- 스탠리 파크
: 자전거 빌려서 seawall 따라 한바퀴 돌 때 보이는 풍경은 정말..ㅠㅠ최고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스탠리 파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지도를 확인하세요!
- 잉글리시 베이
- 캐나다 플레이스
- 개스타운
: 여기는 날씨 흐려도 밤에 거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증기시계 근처에서 사진찍으면 잘나와요 ㅎㅎ

3) 추천 맛집

- Dae-ji(한식집)
: 대부분의 음식들이 맛없었지만 김치볶음밥, 돈까스 추천 (양 매우 많음 하나당 1.5인분정도)
- 그랜빌 아일랜드 public market에 있는 stewart's bakery의 타르트
- 사무라이 스시
- The kegs 스테이크 하우스
- Fritz European fry house의 poutine (토핑은 pulled pork 추천)
- Steveston pizza company의 랍스터피자

5. Tax, tip 문화

대부분의 가게나 식당에서 나오는 제품, 음식등의 가격은 tax가 붙기 전의 가격입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 제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약 12%정도가 더 붙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tip은 tax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15%를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실수였지만(ㅠㅠ) 캐나다에 오기 전에 유심 잘 보고 사세요! 구글에 검색하면 여러 유심들 많이 나오는데 제공되는 데이터 양이 하루 기준인지 전체기간 기준인지 꼼꼼히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 5기가 제공인줄 알고 사서 와이파이도 안키고 평평쓰다가 알고보니 21일동안 5기가 제공이어서 마지막 일주일동안은 데이터 속도가 느려서 카톡 외에는 밖에서 잘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내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홈스테이 집 또한 와이파이기가 있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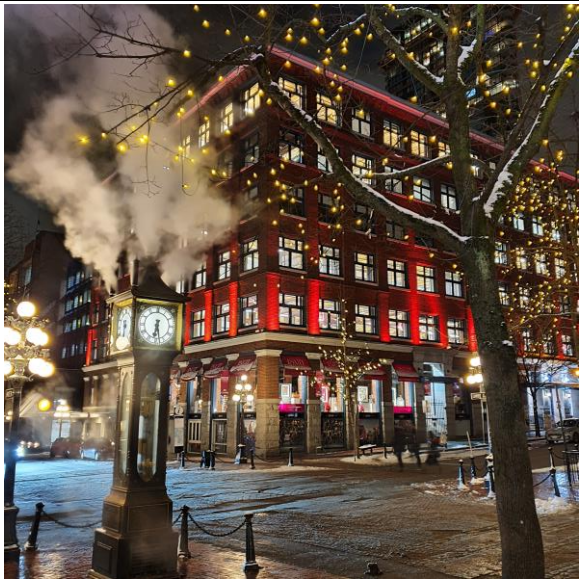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그것마저 좋았던 3주간의 생활이었습니다. 운이 좋게 홈스테이 가족을 잘 만나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같이 간 학교 친구들도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어서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밴쿠버는 한적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밖에 있으면 뭔가 마음에 여유가 느껴지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저와 잘 맞아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과 달리 향수병도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이곳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ㅠㅠ

또한 3주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 중 하나가 순천향대학교에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캐나다로 단기어학연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를 생각하면 여름에 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안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점과 수업내용이 쉬웠던 점 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쉬웠다고 배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speaking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이나 그 이후의 생활을 캐나다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Gastown	Canada place
	
Stanley park	Empress hotel(Victoria)



Parliament of B.C.(Victoria)



랍스터피자